



즉시 배포용: 2021년 3월12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시간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**

**공공 및 민간 직원들은 주사 당 최대 4시간이 허용*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공공 및 민간 직원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법안(S.2588-A.3354-B)에 서명했습니다.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직원들은 주사 당 최대 4시간이 부여되며, 직원이 취득 또는 발생한 다른 휴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.

**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우리의 필수 직원들은 팬데믹 첫날부터 최전선에서 종사해 왔으며, 팬데믹 후 세계에서 새로운 정상을 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직원들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법규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직원 모두 자신이 얻은 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내어 모든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고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."

**Charles D. Fa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수록 비즈니스를 더 빨리 재개할 수 있고, 업무 시간을 더 안전하게 연장하고, 일상 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현재까지 백신 배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, 연방 행정부가 더 많은 예방 접종을 시행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 법은 근면한 뉴욕 주민들이 임금을 잃는 것과 예방 접종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게 합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